

Washington Accord와 공학인증제



윤우영

고려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wyoon@korea.ac.kr

1. Washington Accord란 무엇인가?

워싱턴 어코드(이하 WA)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의 6개 나라의 전문공학교육프로그램 (professional engineering degree program)의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들끼리 서로의 공학교육에 소위 "substantial equivalency"를 보장하기위해 1989년에 맺은 협약이다. 1995년 홍콩, 1999년 남아공화국의 가입으로 현재 8개 정회원국이 있다.

회원국을 대표하는 기관은 각각 호주의 IEAust(Institution of Engineers of Australia, 회장 Dr. Peter Greenwood), 미국의 ABET(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회장 Mr. Larry D. Nixon, 사무총장 Dr. George Peterson), 영국의 EngC(The Engineering Council, UK), 뉴질랜드의 IPENZ(Institu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New Zealand), 캐나다의 CCPE(Canadian Council of Professional Engineers), 아일랜드의 IEI(Institution of Engineers of Ireland), 남아공화국의 ECSA(Engineering Council of South Africa), 홍콩의 HKIE(Hong Kong Institution of Engineers) 이다.

WA에서 말하는 인증(accreditation)이란 졸업생들이 특정한 능력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임을 구별하기위한 일종의 품질 보증제(quality assurance)이다. WA의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인증한 공학프로그램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이 될 수 있으며 또 전문가 수준의 공학 행위(practice of engineering at professional level)를 위한 학문적 기본 요구사항에서 substantial equivalent 함을 보장하는 약속인 것이다. 여기서 특정한 능력이란, ■시스템, 공정, 기계장치의 설계,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수학, 기초과학 등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복잡한 공학 문제를 공식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환경, 경제, 사회에 미치는 공학적 주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평생 교육과 전문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 ■전문 공학인 으로서의 윤리의식, ■동시대적 문제제의 인지

능력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WA는 공학 학부교육 수준의 상호 인증을 의미하며 공학 대학 원급의 수준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는 기능 사급(technology)의 교육과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 간 인적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Sydney Accord와 단순 기능 인급(technician)의 교육과 이들을 대상으로 정한 Dublin Accord와 구별될 수 있다.

WA의 회원국으로는 앞서 말한 8개국 외에 소위 “provisional” 회원으로 2003년 현재 일본,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4개국이 있다. Provisional 회원은 (이하 준회원) 정회원이 되기까지 보통 2년 정도 걸리며, 자국에서 공학인증을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인증의 공신력과 절차의 타당성 등을 최소 두 정회원국의 검증을 거쳐 2년 마다 열리는 WA 회원국 대회에서 가입을 신청하여 회원국 2/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준 회원국이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국내의 인증이 소위 충분히 “성숙”되어야 하고 WA 대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준 회원국인 일본의 인증기관은 JABEE(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이며, 독일은 ASII(Accreditation Agency for Study Programs in Engineering and Informatics), 싱가폴은 IES(The Institution of Engineers, Singapore), 말레이시아는 BEM(Board of Engineers, Malaysia)이 각기 자국을 대표하는 인증기관이며 그 자격으로 WA에 참여하고 있다.

2. WA 와 국가간 기술인력 교류

세계는 바야흐로 국제화 시대이다. 즉, 공산품의 자유로운 교류를 시작으로 농산물, 단순 및 전문 기술 인력으로까지 그 교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DDA(Doha Development Agenda), FTA(Free Trade Agreement)로 대표될 미래 산업사회는 인력의 자유로운 교류를 추구하고 있다. 즉, 예를 들면 미래의 사회에서는 특정 국가에서의 용접공은 다른 나라에서도 차별 없이 용접공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건축 설계사와 같은 고급 전문기술인력 또한 추가적인 자격검사를 통과하지 않고 어느 나라에서나 동급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로의 개방이 계획되고 있다. 전문 기술인력 중 법학, 의학 분야에서 보다 공학 분야의 개방이 먼저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전문 기술사들의 교류를 WA가 주도하고 있다.

기술 인력의 국가 간 자유로운 교류는 크게 다자간 협약에 의해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와 국가의 관리 하에 NGO(none government organization)인 관련 기관이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EU 나 NAFTA 등에는 이미 역내 국가 간 기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도 소위 “APEC Engineer 협약”을 체결 현재 미국 등 11개국, 토목 등 11개 분야에서 전문 기술인력(주로 ‘기술사’ 급)의 상호 인정을 약속하고 있다.

APEC 이외의 협약으로 APEC 내 일부 국가와 영국, 아일랜드, 남아공 등의 11개국의 NGO 들이 조인한 EMF(Engineer Mobility Forum) 조약이 있다. 이외에 기능 인력의 교류를 대상으로 ETMF(Engineering Technologist Mobility Forum) 협약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과 2000년에 앞의 두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이미 전문 기술 인력의 상호 인증과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므로 기술 인력의 대외 활동과 대내 개방은 이미 진행 중이며 우리 공학 교육 또한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기술사 급의 engineer의 equivalence를 보장하는 이러한 제도

의 기초에는 공과대학 학부교육의 equivalence를 상호 인정하는 다자간 협정의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APEC Engineer 협약과, EMF 협약 모두 기술사 급의 상호 인증을 보장하면서 그 이전 단계로서 공학 학부 교육에 대한 소위 상호 등가성(substantial equivalence)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학 학부 교육의 등가성을 유지하려는 제도를 WA가 책임지고 있다. 즉, 공학 학부 교육의 등가성을 Washington Accord를 통해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실무 경험과 추가적인 개발을 요구하며 이런 인력만이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APEC Engineer 협약과 EMF 협약에는 가입을 하였음에도 아직 WA에는 가입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즉, 비록 APEC engineer 및 EMF 협약에 의해 기술사 급의 상호 인증을 약속했으나, 그 이전 선행 단계로서 공학 학부교육에 대한 상호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국제기술사(IPE, inter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로서의 효력이 발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학 학부교육에서 내실의 다짐과 함께 긴급히 준비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2.1 APEC Engineer

APEC 엔지니어 협약은 APEC 국가 상호 간에 11개 공학 분야의 전문엔지니어 (professional engineer)들의 자유로운 교류와 상호 인증을 목표로 맺은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의 7개국이 1996년에 맺은 조약이다. 2003년 현재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국을 포함 총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는 토목(civil)과 구조(structure) 분야에 대해서

만 협정을 맺었으나, 2000년 말레이시아 대회에서 나머지 9개 전 분야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였다. 토목, 구조의 두 분야는 한국건설기술사회에서 나머지 9개 분야는(지반, 환경, 기계, 전기, 산업, 광업, 화학, 정보, 생명) 한국기술사회에서 권장하도록 2002년 12월 법령으로 정하여져 명실공히 APEC engineer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APEC Engineer에 대한 소개를 위해 그 근본 취지와 배경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 APEC 엔지니어 상호인정사업 추진배경

- 가. WTO「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하면 “자격요건이나 기술사의 기준 및 면허조건이 서비스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 기술자격의 국제화를 촉진(95)
- 나. EU, NAFTA 등은 기술자격의 국제화에 부응, 이미 블록별로 기술사 상호인정체제를 구축
- 다.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에 따라, APEC에서도 域內 회원국간의 기술사를 인정하는 「APEC 엔지니어」를 도입하기 위하여 호주 정부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상호인정기준 및 상호면제협정 기본 틀 마련
- 라. 본 사업은 APEC의 여러 실무단 중 인적자원개발실무단(HRD WG)에서 주관하며 사업내용을 정기적으로 조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음.

■ APEC 엔지니어의 정의

APEC 엔지니어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각국의 심사등록위원회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록된 엔지니어

- 인정된 공학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자국에서 독립적인 업무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을 것

- 졸업 후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할 것
- 주요한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2년 이상의 책임자 경력을 보유할 것
- 만족할만한 수준의 계속교육을 유지하고 있을 것

□ APEC Engineer 심사등록요령 및 처리절차

- 심사등록계획공고 → 신청서류배부 → 등록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서류심사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기술사제외) → 등록예정자 선정 → Monitoring Committee 승인 → 등록예정자 발표 → 계속교육학점인수 → 등록 및 등록증 교부

□ 각 국이 제시한 등록기술 분야

등록분야	호주	캐나다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뉴질랜드
토목(Civil)	*	*	*	*	*	*	*
구조(Structural)	*	*	*	*	*	*	*
지반(Geotechnical)	*	*	*	*	*	*	*
환경(Environmental)	*	*	*	*	*	*	*
기계(Mechanical)	*	*	*	*	*	*	*
전기(Electrical)	*	*	*	*	*	*	*
산업(Industrial)		*	*		*	*	
광업(Mining)		*	*		*	*	
화학(Chemical)	*	*	*	*	*	*	*
생명(Chemical)	*	*	*	*	*	*	*
정보(Chemical)	*	*	*	*	*	*	*

2.2 EMF 협약

EMF는 우리나라를 비롯, 호주, 캐나다, 홍콩,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영국, 미국 의 11개국 이 회원국으로 참여한 다자간 협정으로 professional 엔지니어의 국제기준을 정하고 회원국 상호간에 상호 인정과 자유로

운 교류를 보장하려는 협약이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회원으로 가입 엔지니어(주로 기술사급)들의 국제 경쟁을 유도하리라 사료된다.

APEC Engineer 협약과의 차이점은 전자는 국가 간의 쌍무 협정인데 반해 EMF 협약은 국가를 대신한 민간단체들(NGO) 간의 협정이다. 하지만 이 또한 국가기관의 관리 하에 있어 실제로는 국가 간의 협정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6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대한민국 등 11개국 이 서명하여 발효되었고 2001년 남아공화국에서 최종 인증 받았다.

한국기술사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협약을 하였다. EMF는 APEC 엔지니어 협약보다 전문 기술 인력의 학부 교육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다. 즉, APEC 엔지니어 협약의 경우 전문 기술인의 기초로 요구되는 학부교육의 기준이 각 나라의 이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예를 들면 WA 가입국 이라는 조건 외에 '일본의 기사 1급 시험 통과자' 등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 또한 추가적인 부속 조항에서 WA의 교육 기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항들이 있어 주의를 요함), 본 협약은 WA의 기준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WA 기준에 따른 공학교육과 인증제를 거친 대학의 졸업생이 실무 경험과 추가적 개인 교육을 쌓아야만 EMF에서 보장하는 국제 교류가 자유로운 전문 기술자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2.3 WA의 역할

WA는 단순히 각 나라의 공과대학 교육 수준의 동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넘어 공대 졸업생 즉, 전문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들의 국가간 교류 및 이동을 관장하는 기구로 확대되고 있다. 즉, 2년 마다 열리는 공학 교육, 기술인 교류 관련 국제회의인 IEM(International

Engineer Meeting, 제 6차 대회, IEM2003, 2003년 6월 8일-15일, 로토루아 뉴질랜드) 회의에서 보듯이 각국의 WA의 대표자들은 EMF (engineer mobility forum) 회의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었다. 이는 Sydney Accord, Dublin Accord의 대표가 ETMF 회의 대표를 겸하는 것과 유사하며, 매우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다만 APEC 엔지니어 협약의 회의에는 WA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이는 기술 인력의 교류를 대표하는 두 회의의 기본 정신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서 기인한다. 즉, EMF는 각 국가간 등가성이 확인된 (인증된) 공대 졸업생이 일정 기준의 실무 경험을 거쳐 소위 professional engineer가 되고 이들이 전 세계에 걸쳐 국가에 따른 구속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반면, APEC engineer는 APEC 역내의 국가간 전문 기술자의 교류를 유도하는 회의로 전자는 최종 상태만을 중시하는 후자와는 달리 최종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고려 대상이 되도록 요구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EMF와는 달리 현재 APEC engineer의 경우 전문기술자의 자격을 얻기 전까지의 기본 과정에 대해 WA 이외의 여러 종류의 path를 인정하는 듯 표현하고 있고, 이로 인해 WAEMF로 이어지는 회담 대표들과는 다른 대표들이 APEC engineer 회의에는 참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APEC engineer 조항에 비록 공학 교육 기본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인정 조항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학 기본 교육 내용에 대한 WA의 수준에 대한 등가성 요구는 여러 부속 조항에 걸쳐 암암리 강요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즉, 현재는 EMF engineer와는 달리 APEC engineer가 되기 위해 WA 수준의 공학 교육과 인증절차가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듯하나, 실제 적용 단계에 있어 이에 대한 부족 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사실은 WA

의 역할의 확대를 의미하며, WTO, DDA, FTA 시대로 대변되는 global 개방시대에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자격 기준에 앞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알게 해준다.

3. WA와 공학 인증제

공학 교육 및 공학 기술 인력에 대한 global standard화와 WTO 체제는 우리나라 공학 community에 던져진 위협이며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 즉, WTO 시대인 21세기 산업 정보화 사회에서는 엔지니어 또한 국가나 지역의 장벽을 넘어 자유로이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내 엔지니어 시장이 외국에 열리는 위협인 동시에 우리 엔지니어들이 세계를 무대로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졸업생의 절대 다수가 (73.8%,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기술 인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공과대학의 교육은 우리 엔지니어가 세계로 나아가 자질을 갖추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즉, 특정 국가에서만 통용되는 교육 및 기술인이 아닌,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기술을 펼 수 있고, 또 관련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이는 공학 교육의 global standard 만족과 함께 우리나라의 인증기관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WA 가입, 공과대학 각 프로그램에 인증제 도입을 전제로 한다.

WA가 요구하는 공학 인증제의 요체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과 그 학생을 채용하고 쓰는 기업과 사회라 할 수 있다. 학생, 기업, 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제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하게 교수, 시설, 자원 등을 갖추어야 한다. 더욱이, 인증제는 이의 달성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도록 요구

하고 있다. 또, 변화된 사회와 개인의 요구를 반영, 전문기술 지식 외에 공학인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12가지(미국의 경우 11가지) 능력(소위 사회성 등에 필요한 'soft skill')을 반드시 교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모든 것은 교육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학생들이 이 능력을 교육을 통해 보유하게 되었나를 측정하여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육의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달성을 요구한다. 올해의 공학 교육은 작년의 교육으로부터 개선된 것이고, 내년의 교육은 올해의 것을 평가 다시 개선되어야 하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소위 'feed back' 됨을 보여야 한다. 이는 모든 교육결과(학업성과)를 측정하고 이전 것과 비교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함을 말한다. 이것을 통해 교육목적과 교육내용 등이 지속적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교육의 'global standard화'이다. 이미 공학 기술에 있어 한 지역에만 통용되는 것은 드물다. 세계화 시대(WTO 시대)에 있어, 공학 학부교육과 공학 엔지니어들에 대한 다자간 국제협정은 벌써 진행 중이며, 일부는 공대 교수들조차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공학 인증제는 국제화된 전문 기술인의 교육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기술 인력의 교류를 보장하려 한다.

공학인증제에서 요구하는 공학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으며 동시에 인증기관은 국가간 상호 검증 단체인 WA에 가입을 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술 인력도 국제 상호 인정의 혜택을 누리고 또 국가간 자유로운 교류의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올 IEM2003 회의 중 WA의 안건 중 하나는 이

제까지 자국 내에서만 각 인증기관의 인증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자국이 아닌 지역의 자국 분교에도 효력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교육 개방이 논의되고 있는 요즘 매우 중요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ABET으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이 우리나라에 분교를 설치하면 그 졸업생은 WA에서 인정하는 학부교육을 받음으로 추가적인 실무 경험을 득한 후 EMF나 APEC 엔지니어 협약으로 국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아직 가입이 안 된 우리나라 공과대학 졸업자들은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국내 교육개방이 이뤄진 후 외국 대학들과의 공정한 경쟁에서 우리 대학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WA에의 가입은 서둘러야 한다.

WA는 각 나라의 비정부 단체인 인증기관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인증기관은 물론 인증기준, 절차, 결과에 대한 WA의 기준도 만족하여야 하나, 무엇보다 자국에서 독보적인 권위와 독립적 예산 운영 등 영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자국의 대표성이 인정된 기관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더욱이 가입을 위한 문서 작성에서 보듯이 자국의 공학 교육 체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공학 기술인의 자격심사 및 종류(소위 licensing), 등록(register), 후속 개발 교육(monitoring) 등의 자국 내에서 공학 기술인 관련 모든 체제의 서술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WA의 역할이 점차 국가간 기술인력 교류로 확대됨에 따라 매우 당연한 요구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학 교육은 각 공과대학이 담당하나(교육인적자원부 관리 하라고 여길 수 있음), 인증업무는 순수 비정부 단체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자격 심사는(소위 licensing)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서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등의 체계로 담당하고 있으며, 등록

(register)은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기술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관리 및 재교육(또는 추가 교육)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현재의 어떤 기관에서도 담당하지 않고 있다. APEC 국제기술사의 경우 또한 토목, 구조 부문은 건교부 산하 건설기술사회가 다른 분야는 과기부 산하의 한국기술사회가 담당하는 등 정부기관과 관련 비정부기관이 모두 제 각각이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의 활동이 상호 견제와 독립이 더 유효하여 진행되어온 결과라 사료되지만, 세계화 및 global standard화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WA 가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임에 우리나라의 모든 관련 기관은 그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이미 1999년 설립 후 2000년 동국대, 영남대의 시범 인증을 시작으로 9개교 60여개 프로그램의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2004년에도 6개교의 인증을 준비 중으로 바야흐로 국내 정착 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내 공학교육의 세계화 및 세계와의 “substantial equivalence”를 위해 WA의 가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는 거의 동시에 발족한 일본 JABEE의 2001년 준회원 가입과 비교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WA의 성격이 이미 각 나라의 인증기관들끼리의, 국가간 공학 교육의 등가성을 확인하는 수준의 연합체가 아닌 국제 전문 기술자의 교류를 목적으로 공학 교육의 등가성을 목표로 하는 연합체로의 역할 확대가 있으므로 인증기관과 기술사의 자격, 등록 관리가 분리되어있는 우리의 사정 상 WA 가입을 목표로 이들 유관 단체의 역량 집결은 필수적이다. 나아가서 우리 기술사의 해외 진출 및 해외 기술사에 대한 국내 시장 개방, WTO, FTA, DDA로 대표되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대비를 위해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국내의 공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담당자, 인증기관, 엔지니어의 자격, 등록, 관리를 하는 기관, 이를 감독하는 정부 각 부처 등 모든 기관이 역량을 결집 WA가입을 이룩하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WA에는 비록 8개 정회원국이 있고, 각 나라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제 의사 결정 및 운영은 미국의 ABET이 주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WA의 실제적 사항을 좌우하는 사무총장을 이제까지는 회원국들끼리 돌아가며 맡았지만, 미국이 영구적으로 맡아주기를 금번 IEM2003 회의에서 전 회원국이 요청하는 형상이었다. 이는 WA가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 하에서 미국외의 나라는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이 부족함에서 기인한다. 이는 미국의 세계 공학 교육과 기술교류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지어는 이제까지 교육 체계가 달라 학부 인증이란 개념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럽에서조차 교육 체계를 바꿔가면서 WA 가입을 준비하고 있음을 볼 때, 미국식 제도 및 절차의 세계화는 당분간 시대적 대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인증기관의 체계, 기준, 절차 등이 미국 ABET에서 기인하고 운영 방식도 이를 bench marking한 것은 어쩌면 적절할 수도 있다. 즉, 독립된 비정부 단체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정부기관, 전문학술단체, 산업체 및 공과대학 대표기구 등이 협조하여 발족하였고, 인증을 충실히 진행하며, 국내의 유관단체와 공고한 협조를 통해 대외 활동에 나서면, WA의 가입은 당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졸업생의 해외 진출과 국내 공학 교육의 세계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내실 확대와 국내의 결집된 역량, 대학들의 적극적인 교육 개선 및 인증 참여가 요구된다. 이 모든 것이 내일의 공학도 및 기술인을 위한 현재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임을 감히 주장한다.